

리서치센터장 김장열  
 jay.kim1007@gmail.com  
 02-3779-3531

## 김장열의 '요것만'

이재용 대법원 파기 환송 선고. IT 관련주 영향은?



8월 29일 이재용부회장 대법원 파기 환송 선고로 향후 재구속 and/or 파기환송 재판의 결과까지 6개월~1년에 걸친 주요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투자 심리적으로 부정적이다. 삼성전자 주가 보다 삼성 관련 장비/부품 업체의 주가 낙폭이 컸다. 그런데 좀 더 들여다 보고 생각해 보면, 업종별로 차이가 타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도체 장비주. 가장 부정적 영향일 클 것으로 우려된다. 최신 공장투자에도 유틸리티 인프라 일부만 투자하고 그 다음 공정장비 투자는 유보한 상태였다. 반도체 산업 자체의 수급이 호전되지 않으면 관련 투자는 과감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베팅의 규모가 어느 산업보다 (디스플레이,스마트폰, 2차전지 등 대비)

크다.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이기에 현 상황에서 하이 리턴이 불확실하면 그룹총수의 결단없이 는 진행이 앞당겨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스마트폰 부품주. 이번 파기환송자체가 미칠수 있는 영향은 반도체보다는 덜 부정적이다. 하지만, 삼성의 ODM 사업 확대 전략이 미칠 국내 부품업체에 부정적 영향과 삼성스마트폰 낮은 마진상태로 인한 지속적인 가격인하 압력 우려가 사실 더 큰 우려요인이다.

디스플레이 장비주. 반도체대비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반도체 처럼 디스플레이 산업 업황 자체의 호전이 아니면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LCD=> QD-OLED투자 같은 경우, LGD/중국의 BOE등과 OLED TV에서의 헤게모니 경쟁을 감안해야 한다. 반도체같이 압도적인 경쟁력 우위는 아닌 상태이다. 여유가 없게 된다, 지체하다가는.

2차전지 장비/부품주. 파기환송 결정이 삼성SDI에 공급하는 관련주의 영향은 무의미할 것이다. 가장 적은 리스크-가장 뚜렷한 대세 업종이기 때문이다.

소재주. 특히 국산화 가능성/진행 소재주는 영향 없을 것이다. 대세이다. 단기 엄청난 시설투자 결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결국은 산업 펀더멘탈/ 자체 경쟁력,위상/ 대세,방향성이 핵심변수다. 총수의 경영현장 부재 여부가가능성에도 투자 우선순위 결정의 잣대는 변하지 않는다. 사업을 계속하는 한. 대법원 판결 방향과 관계없이 반도체는 불확실한 상태의 지속이었고 2차전지는 대세로 추진중이고 소재는 일본갈등하에 부상한 새로운 과제이었던 것이다. 전반적인 투자심리 불안이 일정시간 지나면 업종간의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김장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 구분              | 투자등급 guide line<br>(투자기간 6~12개월) | 투자등급               | 적용기준<br>(향후 12개월) | 투자의견<br>비율 | 비고   |
|-----------------|----------------------------------|--------------------|-------------------|------------|--|
| Sector<br>(업종)  | 시가총액 대비                          | Overweight(비중확대)   |                   |            |  |
|                 | 업종 비중 기준                         | Neutral (중립)       |                   |            |  |
|                 | 투자등급 3 단계                        | Underweight (비중축소) |                   |            |  |
| Company<br>(기업) | 투자등급 4 단계                        | Buy (매수)           | +15% 이상           | 61.5%      | 투자의견 비율은 의견 공표 종목들의 맨 마지막 공표 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 등급별 비중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 |
|                 |                                  | Hold (보유)          | -15% ~ +15%       | 1.1%       |  |
|                 |                                  | Sell (매도)          | -15% 이하 기대        | 0.0%       |  |
|                 |                                  | Not Rated(투자의견없음)  | 등급보류              | 37.4%      |  |
|                 |                                  | 합계                 |                   | 100.0%     |  |